

# 질문 품은 무대... '무담시 공연예술창작소' 출범



공연 창작·교육 전문 플랫폼 '무담시(MUDAMSI) 공연예술창작소'가 공식 출범했다. 25년간 지역 공연예술 현장을 지켜온 극단 유피씨어터의 창작 성과와 김하정 연극·뮤지컬 연출가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체다.

김하정 무담시 대표

무담시는 창작과 교육을 분리하지 않고 무대 제작 과정 전반을 하나의 교육적 경험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 공연 제작 현장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실제 수업이 가능한 체계적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무담시'는 전라도 방언으로 '무엇 때문에?', '왜 그러는가?'라는 뜻을 담고 있다. 상대를 다그치는 질문이 아니라, 이유와 사정을 먼저 묻는 말에 가깝다. 창작소는 이 방언에 '무대를 담은 시간'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김하정 연출가는 "무담시는 결과를 먼저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과정을 이해하려는 질문"이라며 "연극과 교육 모두 '무엇을 했는가'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데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과정 중심 공연 창작·교육 전문 플랫폼 극단 유피씨어터 25년 창작 성과 바탕 지역 콘텐츠의 새로운 확장 모델 제시

무담시는 성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창작과 교육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 오랜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설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충분한 시간 속에서 창작의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김 연출가는 연극을 출발점으로 오페라, 뮤지컬, 음악극까지 영역을 확장해온 지역연출가다. 광주를 중심으로 보성·광양·여수·강진 등지에서 학생뮤지컬과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이어왔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제작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새롭게 발견하도록



지역 기반 창작과 문화예술교육을 결합한 콘텐츠인 '시간의 숲' 연극 프로그램.

이끌어왔다.

무담시 공연예술창작소는 ▲창작뮤지컬 제작 교육 프로그램 ▲지역 역사·문화를 담은 창작뮤지컬 콘텐츠 개발 ▲장애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교육 ▲학교밖청소년·위기청소년·위클래스 연계 연극·뮤지컬 수업 ▲정서 회복과 소통을 중심에 둔 예술교육 콘텐츠 등을 실제 수업이 가능

한 형태로 체계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공연·교육 전문 창작기관인 무담시는 지역 기반 창작과 문화예술 교육을 결합한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특히 무담시는 지역에서 출발한 콘텐츠가 수도권과 서울로 확장되는 '역유통' 구조를 지향한다. 서울 중심의 문화 생산 흐름을 따르기보다,

광주에서 기획·제작된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하정 연출가는 "지역에서 만든 콘텐츠가 지역에 머물 이유가 없다"며 "광주에서 시작된 무담시의 창작·교육 프로그램이 오히려 수도권과 서울로 유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 목포문화연대, 美 베니티 페어 '김시스터즈' 보도 소개

### K-팝 선구적 활동 재조명

세계적 문화 매체 '베니티 페어(Vanity Fair)'가 한국 출신 여성 그룹 김시스터즈를 '미국 원조 K-팝 슈퍼스타'로 소개했다.

4일 목포문화연대에 따르면, 베니티 페어는 지난달 24일자 기사를 통해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가 등장하기 수십 년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주류 방송 무대에서 활동한 김시스터즈의 의미를 조명했다.

1983년 가수 이난영이 팔도를 데뷔시키며 결성한 3인조 김시스터즈(김숙자·김민자·김애자)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 기지 공연을 거쳐 1980년 미국에 진출했다.

특히 당시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에드 쉐리번 쇼'에 22회 출연한 기록이 다시 주목받



김시스터즈 ABC 사진 아카이브/게티 이미지. (목포문화연대 제공)

고 있다. 이는 비틀스(9회)보다 많은 수치다.

베니티 페어는 이들의 화음과 다중 악기 연주 능력, 무대 매너가 미국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도 기사에서 김시스터즈의 활동을 언급했다.

매기 강 감독은 "1980년대 한국 여성들이 미국 주류 무대에 섰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다"며 "그들의 도전은 오늘날 K-팝의 문화적 확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현재 목포 북교동 예술인 골목에 위치한 '이난영&김시스터즈 박물관'에는 관련 유물 1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김시스터즈 리더 김숙자가 가족 소장 자료를 기증하며 전시의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목포문화연대 관계자는 "이번 보도는 김시스터즈가 글로벌 K-콘텐츠 시대의 포문을 연 선구적 아티스트이자 한·미 문화 교류의 탄탄한 기교였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미국 진출을 넘어 시대와 국경을 잇는 문화적 교량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무게를 한층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 광주문화재단, 생활문화예술활동 동아리 모집...10일부터

광주문화재단이 2026년 생활문화예술활동 동아리지원사업 참여 동아리를 모집한다.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생

활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공모는 1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총 105개 동아리를 선정해 동아리별 2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공모 분야는 ▲공연예술(음악·연극·무용·전통) ▲시각·매체예술(미술·사진·영상) ▲문학 분야이며, 기존 '다원' 장르의 활동 특성에 따라 해당 분야 중 선택해 신청하도록 운영한다. /최명진 기자

## 3년 연속 국비 최고액...전남 '문화요일, 수요일' 성과

### 전남문화재단, 정주민 중심

### 생활권 문화정책 강화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이 추진하는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 문화요일, 수요일'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한 공모에서 3년 연속 국비 최고액을 확보했다.

2024년 사업 도입 이후 이어진 성과로, 전남형 생활권 문화모델이 국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은 셈이다.

재단은 지난해 해당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전국 최우수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전남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일상 공간을 문화 무대로 확장한 정책적 완성도와 현장 체감 효과가 주요 성과로 꼽힌다.

올해부터 '문화가 있는 날' 국가 정책 기조는 기존 월 1회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매주 수요일 정기 운영 체계로 확대된다.

재단은 이에 발맞춰 수요일을 하나의 문화 플랫폼으로 설계하고, '수요일의 문화우체국'이라는 콘셉트를 새롭게 도입한다.

실제 사업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정기 운영될 예정이다. 문화 프로그램이 격주 단위로 규칙적으로 순환하도록 구조화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사업에는 전남 도내 14개 시·군(나주·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광·완도·장성·장흥·해남·화순)이 참여한다. 숲과 바다, 전통시장, 마을회관 등 주민에게 익숙한 생활 공간을 무대로 지역 특성을 살린 수요일 콘텐츠가 펼쳐질 예정이다.

재단은 광역 단위에서 통합 전략과 공동 방향을 제시하고, 각 기초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여기에 광역 유망단 프로그램을 더해 도시·산간 지역과 문화 사각지대까지 연결망을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사업의 핵심 방향은 정주민 중심 참여 구조로 전환하는 데 있다. 도민이 격주 수요일마다 반복 참여하며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참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서포터즈 '수요전사'를 통해 운영 품질과 참여 확산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명진 기자

##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



